그린알로에 대인동 사옥서 창립행사

(주)그린알로에(대표이사 회장 박문수)는 1일 오전 광주시 동구 대인동 사옥에서 임직원과 생활건강설계사 등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행사를 개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여대 '교수단장학금 수여식'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장원)는 1일 오후 교내 대회의실에서 '교수단장학금 수여식' 을 갖고 24개 학과의 26명 재학생에게 장학금 1천300만원을 전달했다. 교수단장학금은 교수 전원이 제자 육성을 위해 1인당 매월 일정 금액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한 것으로 매년 '교수단장학생' 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광주여자대학교〉

광주환경시설공단, 포상금 사회복지모금회에

광주시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정태성)은 1일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평가 유공기관 포상금으로 받은 200만원 전액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광주시환경시설공단 제공〉

서강정보대학 홍보대사 선발대회

서강정보대학(총장 김정수)은 최근 대학 회의실에서 5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6명을 선발하는 '제8기 홍보대사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서강정보대학 제공〉

책나눔·나무껴안기 운동 펼치는 아름다운 가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신예정 매니저

"헌책 기증하고 묘목 받아 가세요"

"헌책은 단순 오래된 책이 아니라 한 때 나무였고 숲이었습니다. 헌책을 보는 게 종이를 아끼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나무를 살리는 일인만큼 다함께 초록숲을 가꾸자는 취지로 헌책을 기증하면 나무를 주는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광주·전남본부에서 운영 중인 헌책방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광주생명의 숲'과 함께 2~5일까지 '책나눔·나무껴안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시민들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헌책을 기증하면 3년생 살구나무·매화나무·은행나무 등 묘목을 주는 행사다.

'초록숲 가꾸기' 취지 캠페인 기획

이 행사를 기획한 신예정(여·31) '아낌없이 주는 나무' 매니저는 "책장 속에 오래 묵혀 두기에 아까운 책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을 헌책방에 기증하는 것은 곧 자연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지난해 6월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개관했다. 나눔과 순환운동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온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본부가 또 다른 '나눔의 문화'를 위해 헌책방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오픈한 것. 헌책방 개점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역에서는 광주가 처음이다.

'나눔의 기쁨, 책 읽는 즐거움'을 모토로 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사양길로 접어든 지 이미 오래인 광주지역 헌책방 업계의 현실적 상황과 인터넷 헌책방의 활성화, 수도권지역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의 성공에 착안해 기획됐다. 현재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확보하고 있는 책은 모두 2만7천여권. 보통 원가의 60~70%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발행연도와 상태에 따라 정해진 가격에 따라 판매하게 된다. 가장 저렴한 책은 5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 한쪽에 마련된 카페에서 읽고 가는 건 무료다.

이번 행사를 위해 '광주생명의 숲'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1천주의 묘목을 기증했다. 묘목은 화분이나 앞마당에 심을 수 있는 30㎝ 가량의 크기로 바로 심을 수 있게 준비돼 있다.

"식목일(5일)이기 때문에 주최했다는 것보다 헌책을 나누고 나무를 아끼는 행동을 수시로 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했어요. 식목일이라고 해서 나무를 많이 심고 헌책을 모으는 것 등이 한 순간 아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생명의 숲'서 묘목 1천주 기증

신 매니저는 지난 2008년 아름다운 가게 첨단점에 입사한 후 3년째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직업을 찾던 중 나눔운동을 벌이는 아름다운 가게의 뜻에 동참해 입사했으며 지난해부터는 헌책방의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다.

신 매니저는 "이 행사를 계기로 한 권의 헌책을 여러 사람이 나눠볼 수 있는 헌책방이 더욱 많이 늘었으면 한다"며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도 책과 사람이 넘치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저소득자녀에 올해 128억… 해외장학사업 더 투자"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 10돌

미래에셋이라는 회사가 막 자리를 잡으려던 무렵, '배려가 있는 자본주의'를 가슴에 새긴 박현주〈사진〉 회장은 장학재단 설립을 구상한다. 설립 취지는 단순했다.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장학사업을 벌이기 위해 박현주 회장은 자신의 성과급에서 75억원을 내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을 2000년 3월31일 세운다. 그리고 10년 뒤 박현주재단은 연간 160억원, 장학사업에만 120억원을 지출하는 대규모 장학재단으로 성장했다.

출범부터 10년을 같이한 변형윤 이사장은 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출범 당시부터 재단을 어떻게 키워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박 회장에게 잡혀 있었던 게 인상 깊었다"며 "없는 사람을 위한 장학사업이라는 뜻을 전해왔고 그에 동참해 꾸준히 하다보니 10년이 됐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의 올해 사업예산은 160억원에 달한다. 이는 그룹의 주력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작년 당기순이익의 10%를 넘는 규모다. 금융권에서 이 정도 규모는 이례적이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에만 올해 128억원을 쓸 예정이다. 국내장학생 500명, 해외교환장학생 850명, 글로벌 투자전문가 장학생 20명 등이 혜택을 본다.

박현주재단은 2002년 1억원(42명), 2004년 3억원(42명), 2006년 5억원(63명) 규모의 장학사업을 벌이다 2008년부터는 박차를 가해 65억원(432명), 2009년 82억원(974명) 등으로 확장했다.

중간에 금융위기를 겪으며 미래에셋의 이익이 줄어들 때도 있었지만 장학사업은 계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로써 3월까지 박현주재단이 배출한 장학생은 2천662명에 이른다.

변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자리를 잡았다면 앞으로는 해외쪽으로도 더 키울 예정"이라며 "재단의 장학사업은 훨씬 더 큰 규모 속에서 누가 재단을 맡더라도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경제적 고민 없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연간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내 장학생은 작년부터 500명이 넘어섰다. 이제는 젊은 인재들이 비용부담 없이 해외 경험을 쌓아 눈을 넓히는 기회를 주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내 대학생에게 해외 교환학생 자격을 주는 해외교환장학생은 2007년 100명에서 2008년 397명, 2009년 650명, 올해 850명(예상) 등으로 점차 비중이 커지고, 한국 자본시장에 이바지할 금융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시행 중인 글로벌투자전문가 장학생도 올해 20명으로 늘어난다.

출범 당시부터 박현주 회장이 이사로도 참여하지 않아 화제가 된 박현주재단은 철저히 이사장과 이사진들의 뜻에 따라 운영된다. 현재 윤원배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필상 고려대학교 교수, 김승유 하나금융지주회장 등이 맡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예술 심의위원 위촉

최덕식 광주대 음악학과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임기 1년)으로 위촉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로, 현장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10명의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을 이끌고 있다.

인사

◆전남대학교 인사

▲수산해양대학장 한경호 교수(해양기술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승진 ▲광주서부지사 유재승 ▲광주동부지사 정순호 ◇전보 ▲광주동부지사장 황영국 ▲순천지사장 송한종 ▲영광함평지사장 김경수 ▲해남진도지사장 신호성 ▲무안신안지사장 김재산 ▲고흥보성지사장 김왕수 ▲완도강진지사장 오안섭 ▲광주서부지사 부장 조영종

◆동양종합금융증권

◇전보 〈지점장〉 ▲해남지점 김양주 ▲금융센터순천지점 이웅일

中 대학 자매결연 방중

정규남 광신대학교 총장이 중국 하북과학기술대학교, 하북사범대학교 등 2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최근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결핵관리 기여 장관상

박병란 광주기독병원장이 최근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국가 결핵관리사업에 협조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레이저치의학회장에

김병국 전남대치과병원 구강내과 교수가 최근 열린 대한레이저치의학회 정기총회에서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정원균·김경숙씨 장남 경훈군 전익수((주)쌍학)·박영순씨 차녀 영미양=3일(토) 오후 1시 메리어트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윤순임씨 오남 김오곤군 김환식·김화자씨 조카 김정자양=3일(토) 광주경복궁웨딩컨벤션 1층(경복궁홀)

▲유용태·박미숙씨 차남 민완군 김생옥·허순심씨 장녀 미령양=4일(일) 낮 12시 완도군 완도읍 다이아예식장.

동창·동문회

▲구림초등학교 49회 동창회(회장 신원장)=3일(토) 오후 5시 구림초등학교 운동장. 010-8200-8282.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강열) 월례회=5일(월) 오후 6시 금강산식당 062-224-0808.

종친회

▲동래정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정한영) 부산 화지 시조 선산 한식향사 참례=6일(화) 오전 6시30분 광주상록회관 앞 출발. 010-9615-8567.

▲경주김씨 재광 이사 월례회의(회장 김두석)=5일(월) 오후 6시 홍백(광주 동구 대인동 154-1) 228-3382, 010-6455-6296.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062-363-2240.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062-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062-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모집

▲광주물새 클럽 수영 동호회원 모집=수영 무료로 지도해주며 30세 이상, 북구 거주자 환영. 011-602-2278.

▲광주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독서치료사- 매주 월요일 오후 7시~10시, 방과후아동지도사- 매주 화요일 오후 7시~10시, 심리상담사-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시, 강사- 시인·아동문학가·심리상담지도사 김성구 박사, 문의 평생교육원(062-670-2167, 2168)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오카리나 회원 모집=매주 목요일 주1회(3개월) 건강타운복지관 1층, 광주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062-603-8860~71.

▲(사)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광주시지부 베트남 참전 전우·회원 수시모집=서구지회(018-645-2631), 남구지회(010-8000-6320)

▲씨호크 레저스포츠클럽 동호회 회원 수시모집= 페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윈드서핑,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 062-675-8722.

▲백운선 다이빙스쿨 회원 수시모집= 잠수교육, 스킨스쿠버다이빙. 062-671-9918.

▲황실 십자수 무료 수강생 모집=쿠션·시계·베게·주차중·방석·액자·지갑·핸드폰줄 제작 등 무료교육. 062-512-4000, 062-528-8500.

▲광주시 생활체육야구연합회 사회인 야구팀 '엑스칼리버' 팀원 모집=야구에 관심과 자질 있는 30세~40세의 사회인(특히 투수, 포수) 011-609-9943, 010-2611-7787.

부음

▲김성례씨 별세 정진영·진흥·철모·영순·영희·영신·영숙·금자씨 모친상 =발인 2일(금)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김계수씨 별세 용권(㈜코스코 팀장)·용원(임곡 성당 신부)·성권·용휴·현미·신덕씨 부친상=발인 2일(금)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설효순씨 별세 김진만·진갑·진철·진자·진명씨 모친상=발인 2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